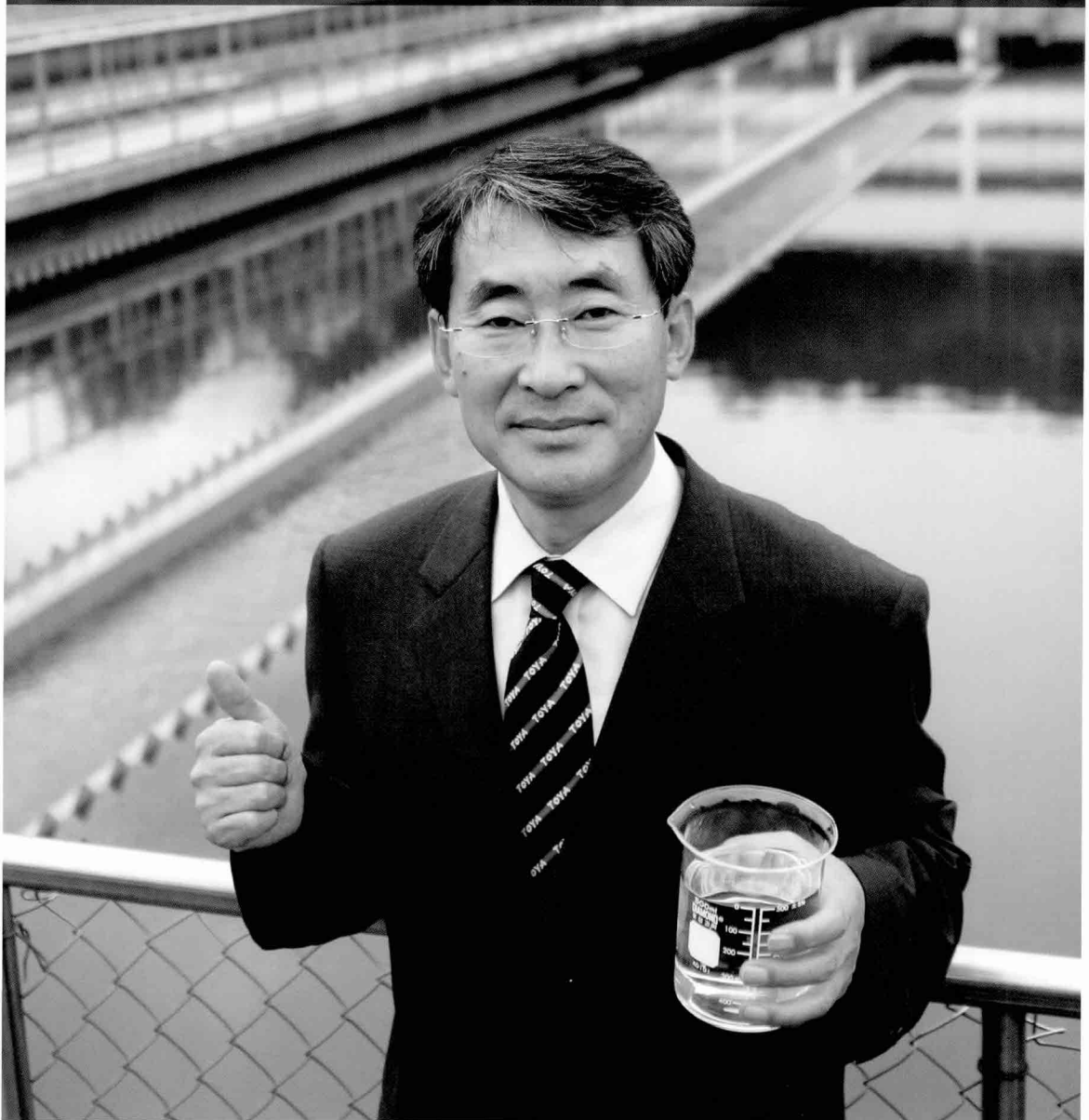


경기도 산하 시·군 공무원 최초의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 의왕시 맑은물 관리사업소 문병무 소장

지난 2년간 4전5기의 도전결과 경기도 최초 건설안전기술사 타이틀을 거머쥔 의왕시 맑은물 관리사업소 문병무 소장을 만나 사업소의 이모저모와 그의 생활관을 들여보았다 글/사진·Willy



“우리 의왕시는 지역이 긴 형태 즉, 고구마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 측면이 자칫

저하될 수 있는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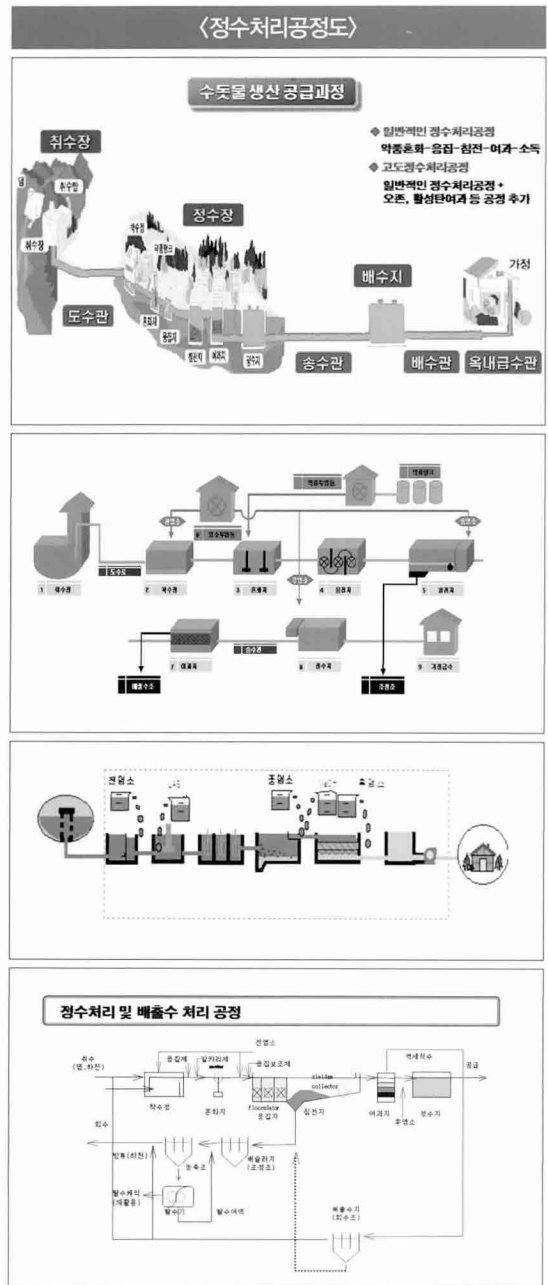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배수지를 지역적으로 잘 배치해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199,485㎡ 대지에 정수장 12동 가압장 2동, 배수지5동을 갖춘 이곳 의왕시 맑은물 관리사업소에서 14만 여 시민에게 연간 총 13,561,000톤을 급수해 상수도 보급률 98.3%를 자랑한다. 또한 품질 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임을 밝히는 문병무 소장. 현재 상수도 미급수 구역으로 남아있는 고천동 고고리, 부곡동 월암동의 도룡, 초평동 광진 지역(총 미 보급 세대수 118세대)만 급수되면 100% 급수의 꿈이 실현된다고 한다.

김포군 건설과를 시작으로 경기도 건설국 도로과, 감사관실, 세계도자기 EXPO 조직위원회, 신도시개발지원단 등 경기도 핵심사업의 주역으로 역량을 펼쳐온 문병무소장이 지난 2월 부임해 조용한 변신을 이루고 있는 현장이다.

그간 주로 건설업무와 관련된 일을 추진해왔던 문 소장에게 의왕시 맑은물 관리사업소장 부임은 파격적인 것이라 여겨졌으나 그런 생각은 그와 마주하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소장실에 들어서자 그는 여러 가지 물을 건네며 맛을 비교해 보라고 한다. 육각수부터, 알칼리수, 정수기를 거친 물 등. “어떤 물이 가장 맛이 좋으냐”는 질문에 “제일 나중에 마신 물이 가장 좋게 느껴졌다”고 말하자 만면에 웃음을 지어내며 그 물은 바로 이곳에서 생산된 수도물이라고 말하며 사실 수도물은 가장 안전한 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깨끗한 물이라고 강조한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는 수자원의 고갈로 치닫고 있어 자칫 후손들은 정상적인 생활마저 위협받는 중요



한 시점에 이르게 된 이때, 의왕시에서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물은 생명이며 자원입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해 시민계몽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음(세계평균 973mm, 우리나라 1,274mm)에도 불구하고 인구 1인당 강수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지도함의 필요함을 느껴 의왕시 맑은물 관리사업소 문병무 소장은

은 연중행사로 맑은물 관리사업소를 오픈해 시민 계몽에 앞장서고 있다.

그간 경기도 곳곳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며, 틈틈이 자기개발에도 힘써 불굴의 의지로 수차례에 걸친 낙방의 쓴잔을 마셨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4전5기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건설안전기술사에 당당히 합격한 문병무 소장. 경기도 산하 시·군 공무원 최초 합격자가 된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전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 ① 물 사랑 심터 앞에서 직원들과 담소중인 문병무 소장
- ② 종합운영실
- ③ 수돗물 생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맑은물 홍보관
- ④ 수질 검사실 전경
- ⑤ 잘 정리된 슬러지 농축조 전경

## 문병무 의왕시 맑은물 관리사업소 소장이 전하는

### 맛있는 수돗물 마시기

산속의 맑은 계곡물은 시원하고 맛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맛이 좋은물'은 이렇게 신선하고 산소(용존산소)가 적당량 녹아있으며 미네랄 등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가 적당량 들어있어야 합니다.

미네랄은 주로 광석에 포함된 광물질들로 철, 망간, 칼륨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물이 땅속을 흐를때 암반에서 조금씩 물에 녹아듭니다. 수소이온농도(ph) 7.4 전후의 약알칼리성을 띠는 물이 좋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산속의 물 자연의 물과 같은 맛있고 깨끗한 물을 만들고자 전 직원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수돗물에서 유난히 약품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에서 물을 소독할 때 넣는 약품인 염소 냄새인데 물에 염소를 넣으면 대장균을 비롯하여 사람의 몸에 해로운 각종 세균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소 냄새가 나는 것은 오히려 물이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염소소독을 했다고 물이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염소를 많이 사용할 경우 트리할로메탄이나 디클로로 벤젠 등의 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 수돗물을 용기그릇에 받아 놓고 차 망에 녹차 잎을 조금 넣어서 담가두면 냄새가 말끔히 없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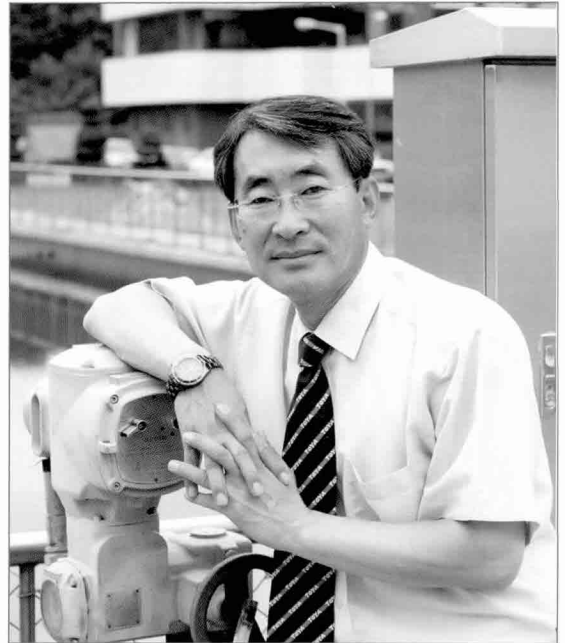
둘째 : 트리할로메탄의 물질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끓이면 날아가 버립니다. 2분정도 끓이면 85%가 제거되고 15분 정도 끓이면 100%제거 됩니다.

### 수질오염으로 발생하는 질병

**청색증** : 어린이가 질산염이 과다하게 함유된 물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전환되어 산소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되어 피의 산소운반을 저해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증세.

**이타이이타이병** : 카드뮴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의 뼈에 이상을 발생시켜 심한 통증과 함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병.

**미나마타병** :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증세로 언어장애, 정신장애를 일으키다 심하면 사망한다. 일본의 미나마타 시에서 발생한 오염사건에서 유래된 이름. ㉠



### \* Profile

#### ▶ 문병무 소장 프로필

- 1986. 김포군 건설과
- 1988. 경기도 지방공무원
- 1991. 경기도 건설국 도로과
- 1996. 경기도 감사관실
- 1999. 세계도자기 EXPO 조직위원회 파견
- 2002. 건설교통국 신도시개발지원단
- 2005. 환경국 상하수관리과
- 2007. 의왕시 맑은물 관리사업소

#### ▶ 수상경력

- 2002. 국가사회발전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